

## 위대하신 하나님\_2017

성경말씀: 시147:1-11

미국 여행: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2월 5일), 한 자매님, 오빠와 새 언니, 킹제임스 성경, 내 설교 소개, 좋아함,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필요: 마음의 평안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이 마음의 평안(세상 종교, 수필 등)인가? 여기서 머물면 멸망이다.

인간 실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불 타고 있는 집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냐, 40도 목욕탕에서 느긋이 몸을 담그고 때를 벗겨내기만 하면 되는 존재냐”

하나님의 판단: ‘인간은 죄에서 구속받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참 평안은 죄 문제의 해결에서 온다.’, 인간의 판단: ‘인간은 어느 정도 괜찮으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흠정역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인간과 온 우주와 온 창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운명은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결국 죄의 값을 영원히 치러야 할 존재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목적과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이것을 놓치고 마음의 평화만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것은 심각한 고집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 불행한 결과 초래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 목사는, 성도는?

물질의 풍요: 구원에 무관심한 성도들, 아이들, 기본부터 다시 시작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다(잠1:7).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잠2:4-6).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된다.

### 믿음의 대상,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려면 나와 하나님의 크기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 불안정 켄터키 주, 노아의 방주, 실물 사이즈(155미터, 26미터, 높이 16미터), Ark Encounter, 2016년

7월 7일, 1000억원, 창조 박물관(켄터키주 피터스버그), 270억, 창조 과학자들

플래니테리움(Planetarium) 극장: 천문학 교실, 우주의 신비

#### 1. 우주의 크기

대한민국, 지구(태양계의 한 행성, 우리 은하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

행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행성: 항성 주위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은하: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성단

우리 은하는 크기가 작은 은하이다. 이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 은하들 수십 개가 모여 은하군을 형성함. 이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함.

이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다. 이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된다.

우주는 최소한 1000억 개 정도의 은하를 가지고 있다. 별의 개수는 무한대이다. 지구는 먼지, ★★★

시편 103:14, 우리는 먼지이다. ★★★

이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 그냥 생긴다는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불가능을 믿음 ★★★

우주보다 크신 분의 존재(창1:1), 과학자들도 다 동의한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을 뿐이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시19:1). 시련이 오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Great)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y 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 2. 하나님의 힘

해가 뜨고 진다(자전), 4계절이 온다(공전),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움직이는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전에는 모두 천동설(Geocentricity)을 믿었으나 그 이후에 지동설(Heliocentricity)을 믿게 됨. 성경은 태양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지지함(전1:5; 수10:13)(루터, 칼빈, 힐즈 등). 나도 천동설을 믿는다.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상대 운동을 이해하면 우주 비행 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일단 지동설로 생각하고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하자.

예: 음속 340m/sec, 비행기 240m/sec, 지구의 자전 속도: 463m/sec(비행기의 두 배)

공전 속도 29.7km/sec(비행기의 123배)

지구 무게:  $5.97 \times 10^{24}$ kg, 달보다 81.3배,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

사람은 비행기를 날린 지 이제 100년이 되었다.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매일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신다. 게임이 안 된다. 그것도 지구 전체를 비행기의 123배 속도로 ★★★

천동설이 맞으면 온 우주를 돌려야 한다. 더 큰 힘, 하나님의 위대하심

### 찬양을 드려라(1)

시편 146-150편은 할렐루야 시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함, 할렐루(할랄): 명료하게 자랑하라,

보이라, 찬양하라, 야: 여호와, “너희는 명료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증언하고 찬송하라”

146, 147편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루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짓고 부른 노래

찬양은 곧 예배를 뜻한다. 예배는 흠모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감정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흠모이다.

1.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2.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을 느끼고 즐기고 따르는 데서 나온다. 예배의 태도 ★★★

3. 그래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동반된다.

4. 그래서 찬양은 선한 것이다(1절). 그분을 찬양하면 우리를 잊게 된다.

5.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 말로, 노래로 표현해야, 예배로 표현해야 한다.

6.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죽음과 부활

### 하나님이 하시는 일

1. 바빌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2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대언서들의 핵심 내용,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신30:1-4)

회개하면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

쫓겨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타락한 자, 낙심한 자를 모으신다.

구원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우리처럼 모여서 교회를 하게 하신다.

2.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3절)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죽이고 멸하는 분이 아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약하고 무익한 자들

상한 갈대와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자들(마12:20),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

마음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물질, 명예, 학식이 아니다.

진정한 고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속중심의 변화 ★★★

3.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4).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주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땅의 모든 창조물을 먹여 살리신다(8-9): 백합화를 보라, 날짐승을 보라(마6:28).

그래서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다(5절). 롬11:33-36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7).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포로 생활 벗어나는 것, 말이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많은 왕들은 말들의 수와 병사들의 수를 자랑한다(10절). 세상의 기준

많은 목사들은 교인 수와 교회 크기와 헌금 액수를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다 먼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 1. 온유한 자들(6절)

이것은 유약하다는 말이 아니다.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위치 설정을 바로 한 자

### 2.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11절)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

### 3. 주님의 공훈에 소망을 두는 자들(11절)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힘든 일이 오게 되어 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수요일 밤과 목요일 밤에 울었다.

## 결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자. “하나님은 위대하다, 광대하다!”

우리의 좌표 설정: “나는 먼지이다.” ★★★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먼지 같은 지구로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셨다.

그분의 친절과 공훈을 생각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